

투데이 칼럼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이만 전 '제대군인 재취업, 취업동아리에서 길을 찾다' 라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중·부사관 제대군인 14명이 참석하여 시립관리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를 소그룹으로 구성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유사 직무를 준비하는 참가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청년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제대군인이라 '그중에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장교 및 중·부사관과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장교 및 중·부사관'을 일컫는다.

보통 제대군인은 계급·연령 정년 제도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라고 한다.

이 분들 중 절반 정도가 연금도 받지 못하면서 연령대 상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 의료비 등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이들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시대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은 재취업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역 후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과 창업상담 및 교육지원, 다양한 정보제공과 경력 설계 지원 등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적 진출 지원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각 기업마다 최소 1명의 제대군인이 채용되어 근무하는 '1사 1제대군인채용'을 목표로 전직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제대군인 홍보, 관심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인 제대군인 주간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범정부적, 범국민적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국가보훈처 등이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제대군인 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 개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본 것과 같이 '취업 동아리'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제대군인 구직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 및 연령별 '취업동아리'를 계획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제대군인센터 취업 상담팀(1588-2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민선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독자제언

고속도로위 과속차량, 2차사고 유발 가능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2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후속사고 또는 2차 사고라고 하는데 2차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2차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전방주의무를 태만히 하여 먼저 발생한 1차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처리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는 운전 중 차량이 고장 나거나 경미한 사고로 정차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신속히 우측차선(고속도로에서는 갓길)으로 이동해 주차시킨 후 차량 안에 탑승한 사람 모두를 반드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차량 안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에는 안전 삼각

대물 후방(주간 100m, 야간 200m)에 세워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전방에 고장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장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 설치 끝난다면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도로공사에 전화해 순찰 요원을 요청한다. 경향이 없어 그것조차 생각이 안난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견인이나 이동조치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갓길이라고 해도 정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졸음운전 차량이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차량이 있을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며 또한 운전자가 자기만 편하자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편함으로,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방곡선 원신경찰서 남문지구대경장

독자제언

안전벨트, 뒷좌석도 꼭 착용을

항공기나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탑승하면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방송을 듣고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늘상 하는 말이거나 한귀로 흘려보내는 일이 있다.

뉴스로 보도되는 수많은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가 있지만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인지 아직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안전벨트의 줄을 느슨하게 매는 사람, 어깨 밑으로 빼내고 운전하는 사람, 허리부분만 착용하는 사람 등 경각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양각색 유형의 운전자가 등장한다.

보험개발원이 교통사고 충격이 안전벨트 착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받은 머리 상해는 착용했을 때보다 약 2.7배 높았으며, 운전자식은 상해정도가 약 1.3~2.4배, 전방 탑승자식은 약 2~4.7배 차이가 났다.

운전석과 조수석뿐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 기준으로 독일(97%), 호주(96%), 아일랜드(89%)순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게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9%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에 26위로 안전벨트 착용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7월 1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경과 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추진 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안전벨트 착용임을 기억하자.

차지성 남원경찰서 도릉지구대 순경

사설

전북도, 발전 사업 추진에 더 힘내야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힘내야겠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왔다는 이야기다. 지금 왜 이런 언급을 하느냐면 도내에 유명 무실한 사업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재원이 없는 사업이 83건으로 전국의 최다라는 보고인데 유감 천만만 일이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이월 처리된 금액이 2천억 원을 넘는다는데 그러고서도 발전 운운은 너무 했다.

정부가 건축 재정 곤경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럴테지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번에 SOC 분야가 그렇고, 산업 분야가 그렇고, 농업 분야도 그렇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유없는 편견이 아니었다. 도내 현안 사업들이 발전 청사진 보여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다면 말이 안 된다. 국비가 있어야 무슨 일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의 고위직에 있는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부처가 건축 재정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이쪽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끈덕진 행보를 보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보여주는 그 이상으로 끈덕지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약속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과 탄소산업이 먼저 떠오르는 중에 그마저도 일의 추진을 보면 거북이 걸음이니 답답하다. SOC 확충에 힘내야 하고 산업 분야 활성화도 신경을 써야 한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상대로 부단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살림살이 규모 있는지 확인을

전북도는 살림살이가 규모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정부가 지방 재정법개정안이라는 카드를 계속 내밀고 있는데 도내 중책을 맡은 이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야 한다. 정부가 성장 전망치를 자주 낮출만큼 국가 경제가 죽을 췌고 있는 판인데 지역 살림 역시나 미덥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전북의 경제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전북도는 작심을 하고 그 무언가를 보여주어야겠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같은 주문을 냉소적으로 들을 게 아니다. 늘 하는 소리가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절치부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고용안정도 여전히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한 세월이다. 기대하는 경제 성장은 과연 언제쯤에나 있을 것인가.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리없다며 머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짚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짚시는 마음 바탕 위에서 전반적으로 살림살이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고심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부족해 속앓이를 하는 바는 아니다. 돈 쓸 곳 많은 지역 살림 때문에 고충이 클 터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지 궁구해야 한다. 지역 경제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소득은 전국 최저인데 근로빈곤층이 전국 최다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내실을 위해서 자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기 침체 탓만 하기엔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각 지자체들의 부채가 심각한 마당이라서 젊은이들을 위한 정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좀체 열리지 않고 있다. 살림살이에 조물리는 것도 한두 해라이지 계속 반복되면 곤란하다. 다시 당부하거나 전북도는 지역 살림을 규모있게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겠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